1913송정역시장 '착한 건물주 운동' 확산

코로나19로 손님 발길 줄자 임대료 10% 이상 한시 인하
서구 광주아울렛도 40여 점포 2월 임대료 내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자 관광코스인 1913광주송정역 시장.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서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1913송정역시장 상인회(회장 범웅)는 코로나19사태의 영향에 따른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10% 이상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감안해 향후 4개월동안 임대료 인하를 지속하기로 했다.

상인회에 가입한 25명의 점포 건물주들이 주축이 돼 결정한 이번 임대료 인하는 조만간 1913송정역 시장의 전체 건물주와 협의 과정을 통해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아왔던 '청년상인 점포'의 임대료도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25명의 건물주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50여명의 건물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접촉에 나서고 있어 참여 점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1913송정역시장' 건물주들의 경우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6년 청년상인들과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협약을 맺은바 있다.

범웅 상인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뜻이 모여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이어졌다"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 같은 운동이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범 회장의 바람대로 광주시 서구에 있는 광주아울렛(회장 고영달)도 상인들과 아픔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번 달 임대료를 10% 안팎에서 인하하기로 했다. 광주아울렛에 입접한 점포는 40여곳에 이른다.

광주아울렛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임대료 인하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방역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쇼핑 등 일상생활을 해주신다면 상인들이 삶의 의지를 다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카톡'으로 남기세요

광주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광주 광산구와 기업주치의센터가 코로나19 피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센터장 김영집)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테마 상담을 실시한다.

테마 상담은 매월 수출·자금·판로·세무·노무 등 기업과 소상공인이 원하는 주제를 집중 컨설팅해주는 것으로, 이번 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27일 카카오톡 '광산구코로나피해상담'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뒤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기술·금융·마케팅 등 애로 내용을 올리면 된다.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선 광산구와 센터에서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수출 피해기업 융자, 고용유지 지원 등 정책과 연결해 해소해줄 예정이다.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난 21일 현재 45건의 경영·자금·판로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 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원자재인 탄소섬유 수급이 어려워 제조 중단 위기에 처한 평동산단 A기업에는 소상공인 특화자금 6억을, 기아차 협력업체인 B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입유예 정보를 각각 연결해주기도 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운남동, 가정·상가 방역소독용품 무료 대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이 지난 24일부터 압축 분무기 등 휴대용 소독용품 패키지를 무료 대여해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 속 방역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무료 대여 사업은 운남동 주민이면 누구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독용품은 이틀 간 대여 가능하다. 압축 분무기는 실내용 1ℓ, 실외용 5·8·20ℓ 용량 등 4종류로, 총 5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독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실외에 마련된 400ℓ 저장탱크에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고, 라텍스 장갑, 마른 헝겊 등 소독용품 패키지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가정 내 소독방법, 코로나19 예방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다.

한편 운남동 주민자치회, 통장단 등 8개 사회단체는 '주민안전방역단'을 구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직후부터 릴레이 방역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1호선 방역 강화

코로나19 '심각' 격상 따라 … 전동차 소독 월 8회로

직원 감염 대비 계획 수립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 보호를 위해 방역 강도를 높이고 직원 감염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매월 2회로 늘렸던 전동차 방역 소독을 월 8회로 대폭 늘렸다. 방역 소독도 손잡이와 수직봉 등 승객들의 손이 주로 닿는 곳에 대해 분무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각 구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역사는 매일 방역하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과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하루 5회 이상 수시로 소독한다.

1회용 승차권은 매일 살균 소독하고, 역사마다 손 세정제를 비치해 승객들이 자유럽게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공사는 또 금남로 4가역의 어르신 쉼터도 잠점 폐쇄 조치하고, 메트로 실버 도우미 활동도 잠시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 감염에 대비한 인력 운용계획과 사내 의심 환자 발생시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긴장감을 갖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해 방역 및 소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행복주택 거주자, 에어콘·무인택배함 선호

광주도시공사 입주민 설문

광주지역 행복주택 거주자 등은 행복주택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에어컨과 무인택배함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행복주택 입주민과 입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부에 꼭 필요한 실내옵션으로는 ▲에어컨(30%) ▲냉장고(27%)를 꼽았다. 부대시설은 ▲무인택배함(29%) ▲헬스장(22%) 등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광주역 행복주택 거주자와 사회초년생, 인근 대학생 총 300여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초까지 30여일간 진행됐다. 주요 조사 항목은 행복주택에 대한 인지도, 입주 시 고려사항, 필요한 내부옵션과 부대시설 등이었다.

조사 결과, 행복주택을 선택한 사유로는 저렴한 주거비용(60.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어 접근성(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시 고려사항으로 꼽는 것은 ▲위치(26%)와 주거비용(25.4%) 순이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청년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광주역 행복주택(700세대)은 지난해 7월부터 입주, 운영중이며, 서림마을 행복주택(500세대)은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협약을 맺고 국비 약 322억 등 총사업비 약 1180억원을 투입하여 도심지내 유휴부지와 노후주택지에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12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북구, 민생규제 혁신과제 구민 공모

광주시 북구가 주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북구는 "다음달 19일까지 일상생활과 취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주제로 생활부문(국민복지, 일상생활)과 경제부문(취업·일자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3개 분야) 총 5개 과제로,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북구는 특히 올해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과제를 새롭게 추가해 관련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 해결 집중할 예정이다.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이메일(qzqz12@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과제는 중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